

현대 공공공간의 스트리트 퍼니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Street Furniture Design in Modern Public Space

Author 황미영 Hwang, Mee-Young / 정희원, 동양대학교 건축실내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Abstract Street furniture such as benches, streetlamps, and shades which are easily accessible in cities has contributed to the promotion of active, lively environment for people living in cities. Furthermore, they make the characteristics of specific regions and cities, and are valued as a communication interface to rest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and cities. The street furniture design with inherent publicness is an essential element for leisurely life and refined image of modern people who have experienced severance and mental poverty in uniform, vertical modern city space with the development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new design approaches to street furniture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termination of the images of modern city environment an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such designs. First, in accordance with the flow of studies from publicness and public space to street furniture, the concept and meaning of publicness which is the basic element of public space were identified through theoretical examin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and roles of modern public space were analyzed through literature review, data review, and international cas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theoretical analysis, the concept and meaning elements, function elements, and design elements of the street furniture which was planned in accordance with the goal and functions of public space were identified. For the meaning elements of street furniture design, fun, health, culture, sustainability, and vitalization were identified. For the function elements of street furniture design, convenience, safety, and delivery were identified. As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street furniture design, convergent, green, digilog, functional, and universal designs were analyz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recognized the roles of street furniture in modern public space as a concrete, practical environmental design element and estimated the development directions of street furniture design in public space.

Keywords 공공공간, 스트리트 퍼니처, 공공성, 디자인 의미요소, 기능요소
Public Space, Street Furniture, Public, Design Meaning Elements, Function Element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근대문명 이래 거리와 공원, 광장 등과 같은 공공공간은 도시민들의 활동과 휴식, 유희, 만남을 지원하며 끊임 없이 변화를 거듭해왔다. 도시에서 접근하기 편리한 벤치나 가로등, 그늘막 등의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는 공공공간에서 도시민들 간의 적극적이고 활기 넘치는 환경을 유지하고 장려하는데 기여해왔다. 또한 지역과 도시의 특성을 만들뿐만 아니라 사람과 도시 공간 간에 소통의 인터페이스로서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 공공(公共)성이 내재된 스트리트 퍼니처 디자인은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획일적이고 수직화된 현대의 도시공간

안에서 단절과 정신적 빈곤을 경험한 현대인들의 삶을 여유롭게 하고 도시의 세련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스트리트 퍼니처가 공공을 위한 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주요한 매개체로 인식되면서 최대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현대인의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공공공간의 스트리트 퍼니처들은 이미 일부 해외 도시에서 도시디자인 혹은 공공디자인의 한 영역으로, 기능적·심미적인 개념과 접목되어 공공공간과 조화를 이루며 활발하게 계획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사회가 중요시하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도시 속 공공공간의 스트리트 퍼니처에 대해 디자인 요소와 특성 및 경향을 파악하고 향후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는 현대 공공공간의 스트리트 퍼니

처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환경디자인 요소로서의 그 역할을 인식하고, 공공공간에 대한 스트리트 퍼니처 디자인의 발전 방향을 가늠해보는데 의의가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현대 도시환경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트리트 퍼니처에 대해 새롭게 시도되는 디자인적 접근방법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공공성-공공공간-스트리트 퍼니처에 이르는 연구의 흐름에 따라, 이론적 고찰을 통해 공공성에 대한 개념과 의미를 파악하였고, 현대의 공공공간에 대한 성격과 역할을 문헌조사 및 자료조사, 해외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공공공간에서 목적과 기능에 따라 계획되어진 스트리트 퍼니처의 개념과 의미요소, 기능요소, 그리고 국내/외 사례를 통한 디자인적 특성 등을 분석하였다.

2. 현대 공공공간의 이해

2.1. 디자인요소로서의 공공성(公共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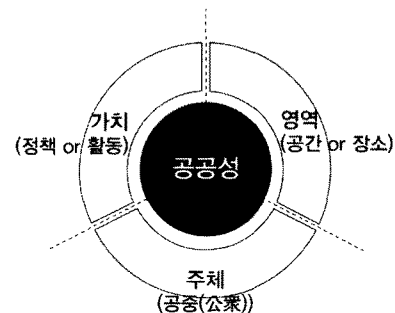
현대사회에서 공공성이라는 용어는 사회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예술학 등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공성에 대해 국어 사전¹⁾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공공성과 관련된 외국어 표현으로는 영어의 ‘public’, 라틴어의 ‘publicus’, 독일어의 ‘öffentlich’이 있으며, 이들은 국가와 관련된 ‘공적인 것(official)’, 모든 사람과 관계된 ‘공통적인 것(common)’,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open)’이라는 의미를 갖는다²⁾. <표 1>에서의 언어적 의미고찰을 통해 공공성이라고 번역되는 개념들에는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공공성은 공공기관이 공공정책에 의해 국민의 삶의 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공의 포괄적 실천 행위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1> 공공성의 언어적 의미

언어	의미	
영어	publicness	공공화된 것(상태), 공유하고 있는 것
라틴어	publicus	인민의, 국가의, 공동체의 복리, 공공복리
독일어	öffentlich	시민, 국민, 공중, 공개성, 여론, 공론성

사회학적 시각에서, ‘공적인 것’과 밀접한 개념에서 출발한 공공성은 그것이 지시하는 내용이 단순히 공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 지향하는 가치(정책이나 활동)나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공간이나 장소), 그리고 그러한 활동을 수

행하는 주체(공중(公衆))와도 긴밀히 연관된다³⁾. 이 공공성과 연계된 세 가지 측면은 항상 상호 간의 긴장관계 속에 존재한다. 특히 공공영역은 무엇보다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와 공중의 의견, 시간적 여유와 공간 등을 전제로 한다. 국가나 사회 혹은 사회구성원 간의 관계에 연관된 공공성을 실현가능한 가치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디자인요소로서의 공공성 개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이 기술과 예술의 조화된 실체로서 인간의 생활에 기여하는 것이며, 현대사회가 이러한 디자인과 인간이 영위하는 생활환경과의 관계 속에 매우 긴밀하고 복잡한 성격을 갖는다면, 디자인은 근본적으로 사회성과 공공성을 기초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공공을 위한 디자인에는 어디까지나 공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있어야 하며 디자인은 결국 목적에 따라 물리적 형태나 공간을 통해 사회문화적 가치를 추구하고, 공중의 삶의 질을 총체적인 입장에서 향상시키는 행위인 것이다. 즉 공익의 차원에서 공공의 포괄적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효용가치가 디자인요소로서의 공공성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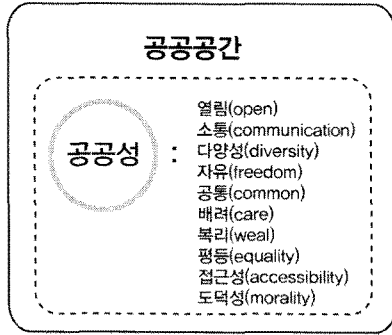


<그림 1> 사회학적 시각의 공공성

2.2. 현대 공공공간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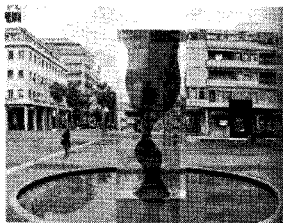
공공성을 기반으로 구축되는 공공공간⁴⁾은 현대도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화두 중 하나이다. 공공공간은 폐쇄된 영역을 갖지 않는다는 조건을 가지며, 서로 이질적인 가치 사이에서 생성되는 공간이다. 또한 이러한 차이를 조건으로 다의적 정체성을 갖는 담론의 공간이기도 하다. 한나 아렌트(Hanna Arendt)는 공공공간에 대해 무언가 새로 시작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자유(freedom)’와 그 자유를 위한 ‘장소(place)’가 마련된 공간이라는 두 가지의 가치로 설명하고 있다⁵⁾.

3) 김세훈 외, 공공성: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 미메시스, 2008, p.26
 4) 건축기본법 제3조[시행 2008. 6.22]에 의하면, 공공공간(公共空間)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http://www.law.go.kr>
 5) 사이트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9주)도서출판 이음, 2009, p.14



<그림 2> 공공공간의 속성

공공공간은 인간과 장소를 연결하는 다양한 활동과 사회적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공공공간의 질에 따라 인간은 많은 영향을 받으며, 선택적으로 소통하면서 사회적 활동을 하게 된다. 이탈리아 페스카라시(Pescara) 광장에는 투명한 아크릴의 물성을 이용한 설치물을 통해 광장을 통과하거나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비일상적인 호기심과 시각적 즐거움을 일상으로 전환시키는 공공시설물이 있다. 와인이라는 주제로 지역성을 홍보하면서, 추상화된 이미지로 상징성과 예술성을 부여하고, 또한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하고 있다. 공공공간-스트리트 퍼니처가 인간과의 소통을 위한 장치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 도크랜드(Docklands)는 보행자 중심의 개방된 공공공간 디자인과 함께, 전통과 현대적 이미지를 결합하면서 일관된 이미지로 도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다. 18세기 당시의 번창했던 부두를 연상하는 대형하역크레인과 돛 모양의 대형 차양막,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물을 그대로 보존·개방함으로써, 공간의 랜드마크 역할과 동시에 옛 것의 소중함을 계승·발전시키려는 디자인 철학을 볼 수 있는 공공공간 사례이다.



<그림 3> 이탈리아, 페스카라시 광장의 Huge Wineglass



<그림 4> 영국, 도크랜드, 부두

현대의 공공공간은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공간으로서 이동과 휴식의 기능이 우선시되는 건강한 공간,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의 조성이 제일의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행자 중심의 공간이 되어야 하고 이동공간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화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밴쿠버 최초의 공원인 스탠리파크(Stanley Park)에서는 공공공간을 그린웨이시스템으로 네트워크화하고 있으며, 해변가를 따라 보행로, 자전거

거도로, 잔디밭, 비포장도로 등 다양한 그린웨이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바르셀로나와 같이 도심철로의 축을 녹지축으로 확장하여 녹지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 5> 밴쿠버 스탠리파크, 그린웨이



<그림 6> 바르셀로나, 도심철로의 녹지축

도심에서의 광장 역시 소통과 나눔의 공간으로, 도시를 더욱 다양한 표정으로 만들어주며, 시민들이 삶을 표현하고 함께 하는 즐거움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공공공간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21세기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디자인 분야가 되고 있다. 결국 공공공간은 도시의 정체성, 예술성, 상징성, 지속가능성 등의 구현을 통해 역사와 자연, 인간과 기술이 공존할 수 있는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스트리트 퍼니처의 개념과 영역

3.1. 스트리트 퍼니처의 개념

스트리트퍼니처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 거리와 도로 등에 설치된 시설물들의 총칭⁶⁾으로 보행 및 차량이동, 관련시설 이용 등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며, 가로시설물 혹은 공공시설물이라 칭하기도 한다. 주로 공공교통차단물·벤치·볼라드·우체통·전화부스·가로등·신호등·교통표지판·버스정류장·택시정류장·공공화장실·분수대·휴지통·기타조형물 등을 포함한다. 또한 스트리트 퍼니처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거리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공중이 사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심미적인 가구(Furniture)로 보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구라는 개념은 공간의 분위기를 좌우하기 때문에 디자인, 색, 안전성, 편안함 등의 다각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시설물의 배경이 되는 공간 및 환경과의 조화로운 또한 중요하다. 최근 스트리트 퍼니처는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시·공간에 대한 기억을 저장하는 새로운 아이콘이 되고 있다. 스트리트 퍼니처 디자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특히 공공의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요소를 철저히 배제시키고 최상의 안전을 위한 구조적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장식성보다는 안전성과 편리성이라는 본래 기능에 충실해야

6) http://en.wikipedia.org/wiki/street_furniture

<표 2> 스트리트 퍼니처(공공시설물) 디자인 영역 및 대상의 비교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www.publicdesign.go.kr)		한국공공디자인학회 (출처: 권영걸, 공공디자인산책, 2008)		서울시 (출처: design.seoul.go.kr)		
분류	세부내용	분류	세부내용	분류	세부내용	
교통시설	도로, 터널, 철로, 고가도로, 교량, 보행 신호등, 펜스(fence), 볼라드(bollard), 가드레일(guardrail), 가로표식, 에스컬레이터, 정류장, 자전거 주차대, 육교, 지하도, 보행유도등, 시각 장애인 유도 블록, 신호등, 교통차단물, 속도 억제물, 주차 시설, 주차요금징수기(parking meter), 톨게이트	교통시설	보행신호등, 펜스, 볼라드, 가드레일, 가로표식, 에스컬레이터, 정류장, 자전거 주차대, 육교, 지하도, 보행유도등 등과 같은 시설물 디자인	휴게시설	벤치, 그늘막	
			신호등, 교통차단물, 속도억제물, 주차 시설, 주차요금징수기, 공공기관 소유 차량 등과 같은 시설물 디자인	위생시설	휴지통, 공공화장실, 음수대	
편의시설	벤치, 의자, 쉼터(shelter), 옥외용 테이블, 휴지통, 음수대, 재떨이, 화장실, 세면장, 매표, 플랜트, 트랜치, 무인키오스크(kiosk), 자동판매기, 신문가판대	편의시설	휴게시설	벤치, 의자, 쉼터, 옥외용 테이블 등과 같은 시설물 디자인	서비스시설	자전거 보관대, 관광 안내소, 공공전화부스, 우체통
			위생시설	휴지통, 음수대, 재떨이, 화장실, 세면장 등과 같은 시설물 디자인	판매시설	가로 판매대
			판매시설	매표, 무인 키오스크, 자동판매기, 신문가판대 등과 같은 시설물 디자인	통행시설	버스정류장 쉼터, 택시정류장 쉼터, 마을 버스 정류장 쉼터,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 지상 노출 승강기, 보도블록, 점자블록, 보차도 경계석, 육교, 교량, 고가차도
공급시설	하수처리장, 관개/배수시설, 상하수도 시설, 맨홀, 발전소, 전신주, 보행등, 신호개폐기, 전력구, 분전반, 환기구, 우체통, 소화전, 방재시설, 범죄예방장치, 신원확인장치, 공중전화, 풍향계, 시계, 온습도계, 인포부스(info booth), 관광안내시설, 지역안내도, 교통정보판, 무인 민원처리기 등과 같은 시설물 디자인	공급시설	관리시설	맨홀, 전신주, 보행등, 신호개폐기, 전력구, 배전함, 환기구, 우체통, 소화전, 방재시설, 범죄예방장치, 신원확인장치 등과 같은 시설물 디자인	독지시설	가로 화분대, 가로수 보호 덮개, 가로수 지주대
			정보시설	공중전화, 풍향계, 시계, 온습도계, 인포부스, 관광안내시설, 지역 안내도, 교통 정보판 등과 같은 시설물 디자인	보호시설	볼라드, 보호펜스, 방음벽, 도로변 옹벽, 터널 전면부 옹벽, 무단횡단 방지시설, 신호등주
			행정시설	각종 집기와 도구, 제복, 가구, 문구, 표찰, 무인 민원처리기 등과 같은 시설물 디자인	관리시설	지상기기, 교통신호제어기, 맨홀, 트랜치, 지하철 환기구, 제설시설, CCTV, 버스전용 단속초소, 주차관리
			기타시설	디지털 영상매체, 시계탑, 상징조형물, 벽화, 공사장 가림막·가리막	조명시설	가로등주

하며, 소통을 위한 장치로서 공간 속 배경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3.2. 스트리트 퍼니처의 디자인 영역

스트리트 퍼니처 디자인의 영역과 범주에 대한 명확한 경계는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공공디자인의 한 범주 내에 속해 있으며 사적 공간이 아닌 공적 공간 즉 공공공간 내에 속한 시설물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용어사전⁷⁾에 의하면 스트리트 퍼니처를 ‘공원이나 가로 또는 광장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작은 건조물들’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도널드 애플야드(Donald Appleyard)는 ‘외부공간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를 조절하고 보존하는 기능을 갖는 장치’로서 정의하고 있다⁸⁾. 따라서 스트리트퍼니처의 범주는 가로에서부터 공원, 광장, 외부공간까지를 포함하는 공공공간의 시설물로서의 포괄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여러 단체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해 목적과 기능에 따라 <표 2>와 같이 각각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전문적인 것과 같이 스트리트 퍼니처의 포괄적 의미에 따라 각 단체별로 분류체계가 약간의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결국 스트리트 퍼니처는 공공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로서 공공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7) 동방디자인 교재개발원, 인테리어 용어사전, 도서출판 동방디자인 2006, p.194

8) 황계화, 신도시 가로시설물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0, p.23

4. 스트리트 퍼니처의 디자인 요소와 특성 분석

4.1. 분석의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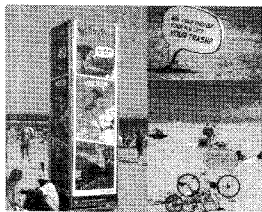
본 연구는 현대 공공공간에서의 스트리트 퍼니처 디자인 특성과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공공디자인 선진화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온 14개국 20여개 도시의 스트리트 퍼니처를 사례로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였고 이에 따른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또한 사례 분석과 함께 참고문헌(1~22)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와 공공공간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스트리트 퍼니처의 디자인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디자인 요소(의미요소, 기능요소)들을 추출하였다. 스트리트 퍼니처 디자인의 의미요소는 수많은 공공공간에서 사람들에게 삶을 즐기고 쉬게 하며 문화를 향유하도록 하는 역동적인 역할의 의미를 가지며, 유희, 휴식, 문화, 지속가능성, 활성화 등이 분석되었다. 또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간의 정보를 전달하는 개념의 기능요소로는 편의성, 안전성, 전달성 등이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디자인 요소에 의해 나타나는 스트리트 퍼니처의 디자인적 특성은 <표 3>의 사례분석과 함께 현대도시의 공공성 및 공공공간의 개념, 그리고 현대문화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디자인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5가지 키워드인 융합디자인, 그린디자인, 디지로그디자인, 기능적 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등이 분석되었다.

4.2. 스트리트 퍼니처의 의미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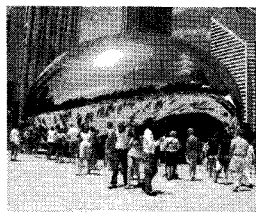
(1) 유희(Fun)

공공공간에서 유희의 의미는 본래 자유, 나눔, 믿음, 조화와 같은 놀이의 개념이다. 유희공간에 대한 다양한 표현은 많은 이용자들에게 신기함, 예측불가능, 놀라움을 제공하며 사회적인 결속력을 촉진하고 공공공간을 새롭게 창출하도록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시카고 밀레니엄파크(Millennium Park)에 위치한 Cloud Gate는 10m×20m 규모로 스텐레스 스틸의 표면이 시카고의 스카이라인을 투영하며 보는 사람이 다른 형태로 일그러져 보여 흥미를 유발시킨다. 그 하부의 3.7m 높이의 공간은 시민들이 시설물을 통과하면서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 시민과 시설물이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랙티브(interactive) 스트리트 퍼니처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바르셀로나의 수변 공간에는 시민의 문화의식을 고취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위트 있는 사인시스템이 있다. 이 사인설치물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즐거운 경고사인디자인이다. 이는 재미있고 유익한 디자인이 도시와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와 같은 친숙한 디자인을 통해 현대인의 생활환경을 중시하는 스트리트 퍼니처 디자인의 의미와 역할을 알 수 있다.



<그림 7> 바르셀로나, 수변공간의 경고사인시스템



<그림 8> 시카고, 밀레니엄파크, Cloud G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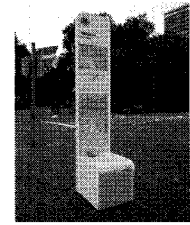
(2) 휴식(Health)

공공공간에서 휴식을 위한 시설물들은 시민들의 심리적·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트레이시 메츠(Tracy Metz)는 그의 저서9)에서 '인간의 사회적 정체성은 일하는 방식 또는 소유한 방식만큼이나 즐기는 레저방식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언급함으로써, 휴식이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수많은 거리, 광장, 공원, 야외카페 등에서 일광욕을 즐기거나 책을 읽고 차를 마시고, 오수를 즐기는 등 외부공간에서 휴식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트리트 퍼니처는 이러한 휴식을 지원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도 시민들이 가장 친밀하게 느끼고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는 많은 공공공간에 배치되어 휴식과 더불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일본

동경 롯본기힐스(Roppongi Hills) 가로변에 설치된 스트리트 퍼니처는 실제 앉아서 쉴 수도 있고 그 조형적 형태로 인해 감상을 하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독일 칼스루헤(Karlsruhe)의 지하철 공사 안내표지판은 거리를 걷다가 지치면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의 기능을 부가하고 있다. 정보습득과 함께 잠시의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스트리트 퍼니처 디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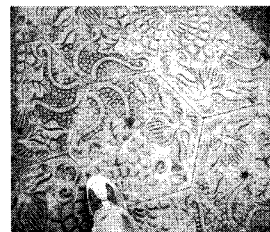
<그림 9> 일본, 동경, 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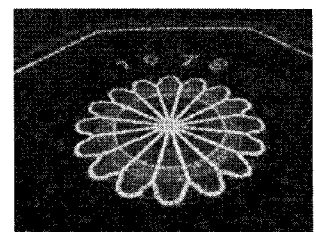
<그림 10> 독일, 칼스루헤, 안내표지판

(3) 문화(Culture)

공공공간에서 문화란 다양한 사건과 상황들의 오랜 집적을 통해 만들어진 독창적인 그 공간만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과거와 현재가 대치되지 않고 조화롭게 어울려 창출되는 일관된 성격이기도 하다. 또한 문화는 시민들의 다양한 스토리를 공유하며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공공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스트리트 퍼니처는 이러한 문화적 활동을 수용하고 다양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서의 역할과 의미를 가진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거리는 보도블록 하나하나에도 문화의 깊이가 새겨져 있다. 세계 최초로 문양을 새겨 넣었다는 이 보도블록은 바르셀로나가 문화적 자존심이 강한 스페인 내에서도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를 지켜온 도시임을 알게 해준다10). 독일의 환경도시로 일컬어지는 프라이부르크는 모자이크 포장11)의 전통을 현재까지 계승, 발전시키고 있으며 포장 패턴이 표상하는 대상과 방식은 공공, 상업, 종교, 역사와 사건의 기록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프라이부르크의 문화 환경과 관련된 다채로운 기억들이 새겨진 모자이크 포장은 이 도시공간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공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 바르셀로나, 보도블록



<그림 12> 프라이부르크, 모자이크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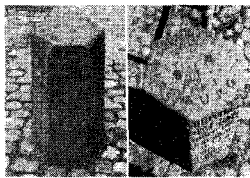
9) Tracy Metz, FUN! Leisure and the Landscape, NAI Publishers, 2002, p.8

10) 김미리 외, 세계 디자인 도시를 가다, 랜덤하우스코리아(주), 2010, p.23

11) 홍윤순, 녹색문화도시 프라이부르크 읽기, 나무도시, 2010, pp.265~275

(4)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1970년대 이후 환경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환경·사회·경제 분야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광의적 개념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주로 환경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이제는 보존의 개념을 넘어 보존과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같은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여러 디자인 분야에서 친환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인간이 생활하는 공공환경에서 목전의 편리와 이익을 위한 개발이 아닌 자연과 함께 조화하며 지속가능하도록, 그리고 미래지향적이며 친환경적인 비전을 갖는, 다수를 위한 스트리트 퍼니처 디자인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독일 뮌스터(Münster) 광장의 플라드는 오래된 조형물처럼 세월의 흔적이 담겨있는 자연적 재료로 기존의 가로환경과 일체화된 질서감을 부여하고 있다. 현대도시의 세련된 감각적 디자인은 의도적으로 배제된 듯 보이나 견고하며 안정된 느낌을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환경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슬로베니아 솔칸(Solkan)시의 분수대는 주위의 산과 강에 의해 형성된 유기적 곡선의 형태와 주변의 배수관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해 환경 친화적으로 제작되었다. 물과 빛 그리고 소리에 의해 자연스러운 공공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13> 독일, 뮌스터광장, 플라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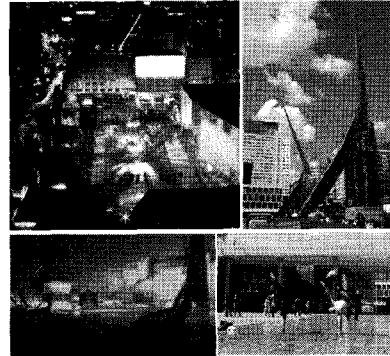


<그림 14> 슬로베니아, 솔칸시, 분수대

(5) 활성화(Vitalization)

공공공간은 시민들의 모든 사회적 활동을 담는 장소로서, 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매력적이면서 새로운 문화와 교류를 창출할 수 있는 스트리트 퍼니처의 계획이 필요하다. 세계의 많은 도시 공간에서는 역사성과 지역성을 보존하면서 만남과 축제, 체험, 정보교류와 같은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공공공간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예기치 않은 활동들을 수용하는 스트리트 퍼니처 디자인을 시행하고 있다. 로테르담 쇼부르크(Schouwburg) 광장에는 유압펌프로 공급된 전력으로 공간이용자들이 가동할 수 있는 조명시설이 있으며 이용자가 동전을 투입하면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이용자 누구라도 자신이 원하는 조명을 연출할 수 있다. 이 광장은 계획 당시부터 불특정된 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며 이용자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는 진정한 의미의 이용자 중심의 소통을 위한 공간이다. 지하주차장을 위한 세 개의 환기탑은

낮에는 디지털시계로 기능하다가 밤에는 부드러운 빛을 발산하는 조명기구로 변화한다.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본으로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하며 다목적 이용과 활기가 넘치는 매력적인 공공공간을 창출하는 스트리트 퍼니처 디자인이다.



<그림 15> 네델란드, 로테르담, 쇼부르크광장

4.3. 스트리트 퍼니처의 기능요소

(1) 편의성(Convenience)

스트리트 퍼니처는 다양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미적으로 아름답게 그리고 예술적·문화적 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편의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불편한 요소들이 제거되어 시설물들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벤치, 사용하기 편리한 휴지통,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거리 안내 표지판 등 스트리트 퍼니처는 공공공간에 꼭 필요한 것들로 설치되거나 배치되어야 한다. 런던거리의 벤치는 우레탄 재질로 제작되어 사계절 기후조건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단순하고 편리한 디자인을 실현하고 있다.



<그림 16> 영국, 런던, 벤치

(2) 안전성(Safety)

최근에 안전은 사회공익이라는 인식이 강조되고 있다. 안전한 디자인이란 사회적 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시설물에 대한 창의적·실용적 활동을 말한다. 스트리트 퍼니처에는 장애인을 고려한 무장애설계나 어린이와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비롯하여 범죄예방을 고려한 CPTED¹²⁾원리를 도입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디자인을 적극 도입하여 활용해야 한다. 공원이자 놀이터와 같은 공공공간은 감시가 용이

12)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범죄예방환경설계)는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도시 환경의 범죄에 대한 방어적 디자인을 통하여 범죄 발생기회를 줄이고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며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축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전략을 의미한다.

한 중앙에 배치하여 모든 공간에서의 가시성을 최대화하고 활발한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범죄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공공시설물의 CCTV, RFID, 데이터 전송 등의 설치를 통해 무인범죄 모니터링과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듯이, 인간생활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에 있어 사용대상의 특성과 한계 등을 염두에 두고 안전을 먼저 고려한 스트리트 퍼니처 디자인이 필요하다.



<그림 17> CPTED(범죄예방형디자인) 예;공공시설물의 배치, 방범로봇 및 사각지대의 CCTV 설치

(3) 전달성(Delivery)

자연발생적으로 사람들은 다양한 정보와 시설물이 가득 찬 활기 넘치는 공공의 장소로 모여들게 되며,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장소는 무수한 정보들로 채워진다. 스트리트 퍼니처는 이러한 복잡한 도시의 공공 환경에서 정보를 담은 시설물들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도시와 공간의 정보가 빠르게 이해되도록 스트리트 퍼니처의 정보체계를 과학적으로 갖추고 이용자 중심의 디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영국의 브리스톨(Bristol)시는 도시의 이동성·정보시스템·가독성 등을 고려한 통합안내사인시설물 디자인을 창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림 18> 영국, 브리스톨, 통합안내사인

4.4. 스트리트 퍼니처의 디자인 특성 분석

(1) 융합 디자인(Convergent Design)

크로스오버, 퓨전, 하이브리드 등으로 표현되는 융합현상은 현대사회의 여러 학문분야에서 보편화되고 있으며 영역을 넘어 하나의 문화현상이 되고 있다¹³⁾. 현대의 스트리트 퍼니처 디자인은 다양한 시설물과 정보를 공간의 맥락 속에 녹여 내어 통합적인 하나의 매체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설물의 독립적인 차별성보다는 자연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크기와 형태를 최적화하여 연계 가능한 시설물들을 통합하는 디자인을 추구한다. 디자인적으로 일체감을 가지면서 기능적으로

는 상이한 결합을 통해, 시민들은 통일감과 다양한 변형을 시각적으로 지각하면서 스트리트 퍼니처의 디자인적 재미를 체험할 수 있다. 이는 공공공간 내 스트리트 퍼니처가 이용하기 편리할 뿐 아니라 보기도 좋고 읽기 쉬운 공공환경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그린 디자인(Green Design)

그린디자인은 사전적 의미로 지구 환경의 보호에 책임의식을 갖는 디자인을 말한다. 1980년 이래로 인간이 야기 시킨 환경적 악화(지구온난화와 같은)에 대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는 관심과 각성에서 비롯되었으며, 도시·건축·인테리어·제품 등 모든 디자인 영역에서 환경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디자인을 해야 한다는 개념을 갖는다. 친환경디자인 혹은 인간 친화적 디자인이라고도 하며 인간-자연-환경의 공생과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디자인이라는 개념도 포함한다. 재생가능한 자원의 사용, 환경적 영향의 최소화 등을 목표로 하는 그린디자인은 접근방식에 따라 하이테크디자인(High-Tech Design)과 로우테크디자인(Low-Tech Design)의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고도의 첨단과학기술(연료전지기술, 하이브리드기술 등)이 환경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용되는 방식이고, 후자는 이와 반대의 개념으로 낮은 수준의 기술로 아날로그적 감성을 전해주는 방식이다. 현대 공공공간의 스트리트 퍼니처는 이 두 가지의 접근방식을 통해 그린디자인의 목표를 실현하고 있다.

(3) 디지로그 디자인(Digilog Design)

현대는 테크놀러지를 이용해 가상과 실체라는 이중의 소통방식으로 활발한 교류를 창출한다. 디지털 기술환경과 아날로그적 감성이 결합된 의미의 디지로그¹⁴⁾라는 개념은 첨단 디지털 기술 환경 속에 자유로운 인간의 감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인간과 기술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다. 현대의 공공공간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교감하는 장소이다. 디지털의 발전으로 생활이나 활동의 편리성은 높아졌으나, 공간 자체는 아날로그적이고 그러한 아날로그적 상황이나 사건은 공간 내에 축적되어 간다. 결국 디지로그 디자인은 도시라는 공공공간에서 디지털이라는 기술의 발전을 통해 인간 중심의 행복함, 윤택함, 안전함, 편안함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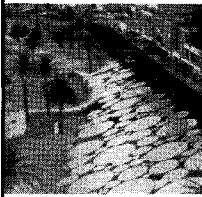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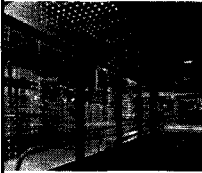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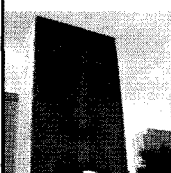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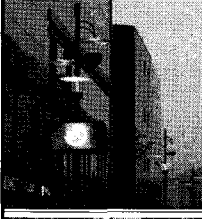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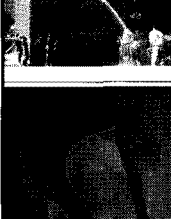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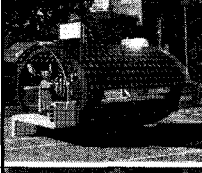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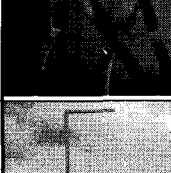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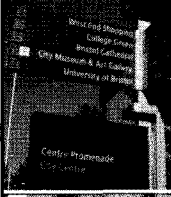





(4) 기능적 디자인(Functional Design)


스트리트 퍼니처는 공공공간 속에 흡수되어 눈에 띄지 않게 디자인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근에는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기능을 우선시하는 효율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추구한다. 인위적인 색채사용을 지양하고 재료 자체의 색을 활용하는 심플하고 세련된 기능적 디자인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한다. <표 3>의 라

13) 서정렬 외, 도시는 브랜드다:랜드마크에서 퓨처마크로, 삼성경제연구소, 2008, p.33

14) 이어령, 디지로그선언, 생각의 나무, 2006, p.160

<표 3> 스트리트 퍼니처 사례의 디자인 특성 분석

Keyword	사례	위치/용도	디자인 특성	Keyword	이미지	위치/용도	디자인 특성
융합 디자인 (Convergent Design)		UAE, Dubai, Xeritown, 그늘막, 가로등	사막 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도시 공간을 위해 설계된 보행자도로와 광장을 서로 연계시키는 차량 구조물임. 부지내로 자연적 통풍을 유도하고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 낮에는 그늘막으로 밤에는 가로등의 역할을 하는 융합디자인임.	디자로그 디자인 (Digilog Design)		Paris, London, Berlin, 첼스, 보도블록	디지털기술을 이용해 개성있는 공간을 연출함. 첼스를 우산이나 막대로 치면 음악이 연주되고 보행도로의 보도블록 위를 걸으면 센서에 의해 눈발자국소리, 물소리, 낙엽 밟는 소리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연출됨.
		서울역앞, 버스정류장, U-쉘터	버스정류장 쉘터에 LED화면을 설치해 뉴스, 날씨, 버스운행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음. 단순히 버스를 기다리는 기능에서 벗어나 첨단미디어와 문화 예술이 융합된 공공시설물임.			USA, Chicago, Millenium Park, Crown Fountain, 분수대	유리블록으로 만들어진 15m 높이의 타워에는 LED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다양한 시카고 시민의 표정과 함께 인물의 입에서 물이 나오도록 디자인되었음. 다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시카고의 특성을 표현하고 이용자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시설물과 쌍방향의 사소통이 가능한 디자인임.
		www.boannews.com, U-가로등	도시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CCTV와 무선 인터넷 기능이 융합된 U-가로등 디자인임. 도심 곳곳의 안전을 감시하며 어린이와 노약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RFID 기반 서비스를 제공해 보호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줌.			Netherlands, Doetinchem, D-Tower, 조형물	주민들이 자신들의 감정을 입력하면 그 데이터에 따라 타워의 색(사랑, 행복, 증오, 공포)이 네 가지로 변화되도록 디자인되었음. 주민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인터페이스로서 도시 공간 안에서 시민들의 생활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을 함.
		Israel, Haifa, 버스정류장, SUNBUS	태양광전지를 이용해 전자 게시판, 공기의 상태, 디지털광고 등의 다기능을 하는 버스정류장으로, 투명한 지붕은 태양센서에 반응해 투명도가 변화하는 에너지 절약형 시설물임.			German, Leipzig, 가로등	폴(pole) 형식의 단순한 선적 형태의 우아함과 4, 6, 8m의 다양한 폴의 높이에 따라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기능적 디자인임. 일반적인 도로 환경에서 적용가능성이 우수함.
그린 디자인 (Green Design)		German, Freiburg, 바닥포장 보도블럭	자연포장재인 모자이크 바닥포장 방식을 통해 그 속에 담겨있는 기호와 상징들을 읽으면서 환경과 소통하는 디자인임. 잘 다듬지 않은 투박한 돌 그대로 사용하여 전통을 계승 발전시킴	기능적 디자인 (Functional Design)		England, Bristol, 사인시스템	브리스틀시는 읽기 쉬운 도시 (legible city) 프로젝트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 정체성 구축의 일환으로, 사인시스템 등에 일관된 색상과 서체를 적용하여 통일성을 갖추고 있음. 사람들이 정보를 잘 이해하고 쉽게 활용하게 하는 스트리트 퍼니처 디자인임.
		Invisible Streetlight, by Jongho Lee, 가로등	태양에너지를 충전하여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유기적 형태의 가로등 디자인임. 주변조경과의 융화와 흡수하고 방출한다는 식물의 광합성 원리를 기본 컨셉으로 친환경과 에너지활용부분을 강조하고 있음.			Denmark, Copenhagen, 교통표지판	덴마크 코펜하겐의 거리에는 진입금지표시판을 도로가 꺾어지는 모퉁이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둥글게 휘어진 표지판을 설치함. 가각(街角)을 중심으로 정면이나 측면 어느 방향에서도 잘 인식되도록 디자인되었다. 최대한 사용자를 배려한 기능적 디자인임.
		German, Freiburg, Bachtel, 도심수로	프라이부르크의 베힐레는 도시를 관통하는 수로이며, 속도와 긴장감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전통적 가치를 새롭게 일깨워줌. 베힐레는 습도유지나 공기정화의 기능적 측면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여유를 느끼게 하는 장치이기도 함.			Spain, Barcelona, 해변, 벤치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안락의자 성격의 벤치. 기후조건, 파손, 절도 등의 상황을 고려해 기능을 강조하고 있고, 유연하게 깊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제작 및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England, London, Wind to Light, 가로등	소형 풍력 원동기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여 수백개의 LED를 밝히는 공공시설물임. 바람이 불면 가볍게 흔들리며, 바람이 시각적으로 활기찬 움직임을 만들어내며 거리의 풍경을 아름답게 만들수 있는 매력적인 에너지자원임을 강조함.			Japan, Tokyo, 첼스	동경 오모데산도에 있는 첼스는 높낮이에 차이가 있는 곡선의 연속적인 구성으로 벤치, 자전거차대, 가로수 보호대 등의 다기능적 역할을 함.
		Italy, Milano, Solar Tree, 가로등	대체에너지인 태양열을 활용한 가로등 디자인임. 휴대폰이나 노트북의 충전을 할 수 있으며 쉽게 분리 조립이 가능. 대체에너지와 디자인을 어떻게 융화시키는 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린디자인의 예. 마치 한 묶음의 꽃을 보는 듯한 유기적 형태를 취하고 있음.				

Keyword	사례	위치/용도	디자인 특성
유니버설 디자인 (Universal Design)		Japan, Yokohama, 보도	바닥과 벽, 지붕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 완만한 슬로프로 이어져 자연과 하나가 되는 일체감을 줌. 경사로를 통해 모든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수직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공평한 디자인임.
		Japan, Yokohama, 정보사인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색깔과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도록, 안내사인을 크게 하고 바닥에도 표시해 누구나도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사인시스템 디자인임.
		Wolfsburg, AutoStadt, 보행시설	건물 진입부는 완만한 경사의 장애인 휠체어 이동통로와 계단, 건축물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고 있음. 황색의 모서리 부분은 디자인적 포인트 요소로서 기능을 갖기도 하지만 약시자에게 있어서 보행중의 유용한 정보가 되어줌.
		England, London, 도로차선	교통사고의 감소효과 및 운전자의 안전운행과 보행자의 안전보행을 위한 지그재그차선. 운전자의 주의 운전을 유도하고 속도를 줄일 수 있는 효과 있으며 국내(서울시)에도 도입하여 시행중임.
		Estudio Cabeza, Accesible, 벤치	등받이와 좌석부분이 분리되어 필요에 따라 움직일 수 있으며, 사용자가 휠체어나 유모차와 함께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벤치 디자인임.
	England, London, 보행도로	야간보행경관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매입조명이 설치된 보행도로임. 보도패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설치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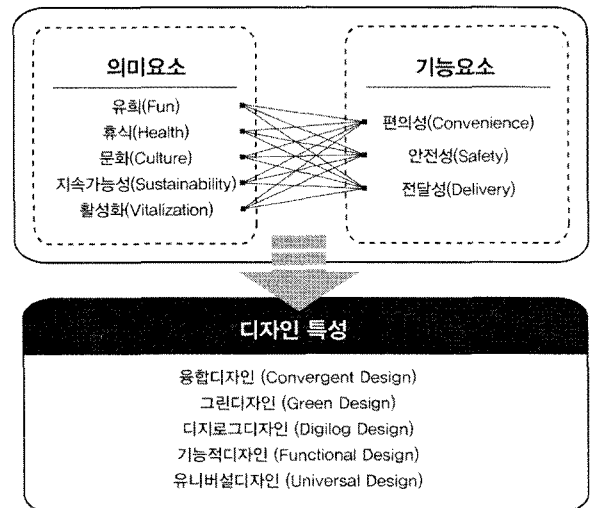
이프치히(Leipzig) 가로에 설치된 가로등 Linea와 같이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는 절제되고 일관성 있는 스트리트 퍼니처 디자인을 통해 공공공간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5)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장애없는(Barrier-Free) 디자인’이라고도 한다. 즉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원하는 것을 동시에 선택하여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인지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한 포괄적인 디자인 개념이다.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는 전체적인 디자인의 흐름에 포함되나 돌출되지 않아야 하고, 인체공학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공평한 디자인, 가변성과 편리성을 고려한 디자인, 안전한 디자인 그리고 아름다운 디자인 등이 전체되고 있다. 공공의 영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주체로 하는 스트리트 퍼니처는 이러한 공평하고 안전한 유니버설디자인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4.5. 소결

스트리트 퍼니처의 디자인 요소와 특성의 분석을 종합하면 <그림 19>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스트리트 퍼니처의 디자인 의미요소로서 유희, 휴식, 문화, 지속가능성, 활성화 등은 공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과 함께 현대인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수의 이용자들을 배려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공공의 공간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능요소로서 편의성, 안전성, 전달성 등은 스트리트 퍼니처의 이용과 활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디자인 의미요소를 실현화하는 것으로, 현대인에게 편안한 경험을 지원하고 공공공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한다. 이와 같이 스트리트 퍼니처의 디자인 의미요소와 기능요소는 공중이 생활하는 공공공간에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며 이 키워드들은 현대사회가 성숙해가면서 보다 쾌적한 공공환경의 형성을 위해 그 중요도가 점점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스트리트 퍼니처의 디자인 특성은 이 디자인 요소들이 구체화되어 표현된 것이며, 결과적으로 공공의 사회적 효용가치와 지속가능한 공공의 인터페이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9> 스트리트 퍼니처 디자인 요소와 특성

5. 결론

본 연구는 현대의 공공공간에서 다양한 의미와 역할을 수행하는 스트리트 퍼니처의 디자인 특성과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공공성 및 공공공간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현재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스트리트 퍼니처 디자인 사례를 통해 위와 같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1) 현대 공공공간의 스트리트 퍼니처 디자인은 공공성을 실현가능한 가치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며, 공적 공

간에서 공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 요소로서의 창조적 행위임을 알 수 있었다.

2) 공공성을 기반으로 구축되는 공공공간은 인간과 장소를 연결하는 소통의 인프라로서 공동의 자유와 배려, 평등, 다양성, 복리 등의 속성을 갖으며 도시의 정체성, 예술성, 상징성, 지속가능성 등을 구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역사와 문화, 자연과 인간 그리고 기술이 공생 또는 상생할 수 있도록 설정된 공적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공공간의 질적 평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공공공간에 대한 디자인적 접근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3) 많은 공적 공간 내에서 스트리트 퍼니처는 디자인 의미요소와 기능요소에 의해 디자인적 특성을 형성하고 있다. 디자인 의미요소들은 현대인의 생활양식과 그들이 추구하는 시대적 정서와 문화를 표현하며 스트리트 퍼니처 디자인의 Key가 되고 있다. 또한 기능요소들은 현대인의 공공공간에서의 다양한 행위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게 될 단서가 된다. 이러한 디자인 요소들이 형태적·내용적·기술적 결합을 통해 5가지의 키워드에 의한 디자인 특성(융합, 그린, 디지로그, 기능적, 유니버설 디자인)을 형성하고 있다. 이 디자인 특성들은 현대의 사회문화적 기반과 현대인의 요구와 취향, 그리고 해당 지역의 특성에 기초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 따라서, 공공공간의 스트리트 퍼니처 디자인은 현대의 도시공간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일상적 리듬 안에 삽입되며, 아이콘적인 도시의 건조물들과 어우러져 다채로운 방식으로 공간을 완성하는 인터페이스로서의 의미와 역할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의 공공공간에서 실천적인 환경디자인 요소로서 스트리트 퍼니처 디자인의 발전방향을 가늠하는데 기본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권영걸, 공공디자인산책, 사미현, 2008
2. 김기호 외, 도시의 생명력 그린웨이, 랜덤하우스중앙(주), 2006
3. 김미리 외, 세계 디자인 도시를 가다, 랜덤하우스코리아(주), 2010
4. 김세훈 외, 공공성: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 미메시스, 2008
5. 박찬숙 외, 유럽의 도시 공공디자인을 읽다, 가인디자인그룹, 2007
6. 박찬숙 외, 일본 경제 공공디자인으로 다시 살아나다, 가인디자인그룹, 2007
7. 서정렬 외, 도시는 브랜드:랜드마크에서 퓨처마크로, 삼성경제연구소, 2008
8. 신홍경 외, Story of Design CITY, 광문각, 2008
9. 이어령, 디지로그선언, 생각의 나무, 2006
10. 조운경, 새로운 문화 새로운 상상력,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11. 조한상,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2009
12. 최인규, 공공디자인 펀더멘털, 시공문화사, 2008
13. 최인규, 도시디자인 프로젝트, 시공문화사, 2008
14. 홍윤순, 녹색문화도시 프라이부르크 읽기, 나무도시, 2010
15. 데이비드김슨, 공간 정보 디자인, 비즈앤비즈, 2009
16. 사이트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주)도서출판 이음, 2009
17. 新建築, (주)신건축사, 2010
18. DAMDI, ADVANCED PUBLIC DESIGN, 편집부, 2009
19. Chris van Uffelen, Street Furniture, Braun Publishing AG, 2010
20. Jacobo Krauel, STREET FURNITURE, LINKS, 2007
21. Marcus Fairs, GREEN DESIGN, Carlton Books Ltd, 2009
22. Tracy Metz, FUN! Leisure and the Landscape, NAI Publishers, 2002
23. Zoe Ryan, The good life, Van Alen Institute, 2006
24. 박소영 외, 공공디자인을 통해 발현되는 건축적 공공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4권 8호, 2008
25. <http://design.seoul.go.kr/main.php>
26. <http://www.publicdesign.go.kr>
27. <http://blog.naver.com/ima7star?Redirect=Log&logNo=70093942671>
28. <http://www.law.go.kr>

[논문접수 : 2011. 06. 30]

[1차 심사 : 2011. 07. 11]

[게재확정 : 2011. 08. 05]